

16/11/06(주) 주일예배 / 제목 :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눅 18:1~8) p.126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는 길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90cm의 키, 몸무게 25kg의 손 스티븐슨(sean stephenson)은 자신을 '90cm의 **축복**이라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소개합니다. 비록 작은 체구로 태어났지만 심리치료사이자 스타 강연가로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은 뼈가 쉽게 부러지고 골절되는 유전희귀질환인 '**골형이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손의 팔과 다리는 누더기를 기워 만든 솜 인형처럼 이리저리 꺾여 있었습니다.

또 머리는 출산 과정에서 눌러 찰흙 반죽 덩어리를 구겨 놓은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낫다'는 의사의 절망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손은 37세 청년으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지만 자신의 쓰임새를 다하고 있습니다. 쉽게 부서지는 몸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반드시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200번 넘게 뼈가 부러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부모의 가르침은 그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장애는 평생 도전과제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손을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 자신의 인생을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낙심하여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손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와 같은 몸을 갖고도 무언가 해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게 만들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화가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낙심을 가져다 줄만한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보려고 나름대로 기도로 매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들 중에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길이기 기도를 낙심과 연관시켜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왜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이유를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본론 /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라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절망에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였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에 교만하고 안하무인의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으로 말미암아 원한에 사무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품고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날마다 번거롭고 괴롭게 할 정도로 원수를 갚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여인의 끊임없는 간청과 부르짖음에 재판장도 할 수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목표와 꿈이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찾아온 과부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원수 갚는 것이요 그 내용은 원한입니다. 아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든지 억울한 누명을 덮어 썼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입니다. 목표가 있는 분명한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고 그 별들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꿈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의 기도만 하지 말고 분명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결국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가슴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목표를 분명히 새기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라

2. 목표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과 한이 서릴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7~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원한이 있으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양이 안차면 저녁에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양이 안차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한을 품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 자식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브닌나라는 첩을 들이고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그러자 브닌나가 어깨에 힘을 주고서 한나를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해서 성전에 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목이 매여 말도 잘 안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매여 말이 나오지 않자 그저 입만 덜덜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술을 먹고 취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입만 달짝 거리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아들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평안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결국 응답을 받아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가 뜨거운 소원이 있어 집중적으로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그 중심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소설의 작가 ‘제럴딘’은 원래 왕성하게 활동하던 ‘애틀랜타 저널’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26살 이던 해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5년 동안이나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다쳐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다가 남편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처음에는 취미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10년이나 걸려 1037 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원고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 다녔지만 무명작가의 소설을 선뜻 받아줄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지방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욕에서 제일로 큰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 간다는 짝박한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보자마자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큰 소리로 그를 불러 세운 후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꼭 한 번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쓴 원고뭉치를 건넸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기에 마지못해 원고뭉치를 들고 기차에 올랐지만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재빨리 기차 역을 빠져나가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차장이 맥밀란 사장에게 전보 한통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보는 마가렛 미첼이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 주세요”라고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은 웃으면서 전보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역시 “제발 내 원고를 읽어 주세요”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같은 전보가 계속 왔습니다. 출장가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전보가 왔습니다. 그 사장은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안 읽어 주면 이런 전보가 한평생 따라오겠다. 한번 읽어 보자’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가 있고 감동이 되어서 새벽까지 잠을 안자고 읽었습니다.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입니다. 결국 소설이 영화화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6년도에 출간된 소설이 바로 30개 국어로 번역돼 1600만부가 판매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리고 미첼은 이듬해에 풀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집념에 감동해서 그 사장이 원고를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집념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전보를 쳐야 됩니다. 마가렛 미첼은 하루에 한 번씩 전보했지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께 비상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받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방해하는지 ~~다행~~ 경우를 통해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 가 있을 동안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20일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에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첫날에 기도가 상달 되었다. 하나님이 첫날에 네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라고 해서 내가 오는데 공중에 페르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막았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뚫을 수 없어서 20일 동안 대치해 있었는데 21일째 하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그들의 반대를 뚫고서 나와서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단10:11~14)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에 다니엘이 20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21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지만 중간에 포기했으면 천사도 하늘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때 마귀가 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야 되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 의지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처럼 20일간이나 기도응답이 없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응답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라 2. 목표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3.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절한 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시40: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조금 하지 않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브~~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후손을 약속 받았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 되었으며, ~~모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우리를 위한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입술의 시인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단순하게 고백만 하지 말고 스스로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걱정은 떠나가고 내 마음 속에 평안이 가득히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중에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매진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낙심을 물리치는 기도로 전력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해야 겠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가 추진하는 10분 기도운동

이라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시고, 목표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약정리 /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라
2. 목표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3.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마라